



베이징올림픽 D-16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해외언론에 취재 개방 자신감 과시

'천안문 내 생중계 금지' 한계 노출도

지난 21일 중국 정부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계약을 체결한 베이징 내 70개 호텔에서 해외 신문, 잡지를 판매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얼핏 들으면 예사로운 일이다. 그러나 중국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거의 청천벽력 수준의 사건이다. 중국이 끝까지 개방을 거부한 분야가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마디를 소개한다.

"올림픽 미디어 센터는 중국 개혁 개방 30년의 성과다. '중국 정치협상회의'(정당, 민족, 사회 단체 간 협의체·국회와 유사한 권력을 갖는다) 비서장(국회의장 비서실장 겸) 비진핑(卞晉平)의 평가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만만찮다. 개혁 개방 30년 만에 중국이 비로소 해외 언론을 위한 미디어 센터가 3곳 있다. IOC 등록 기자 2만 2천 400명을 수용할 때인 프레스센터(MPC)와 국제방송센터(IBC), 그리고 비동록 기자들을 위한 베이징국제언론센터(BIMC)다.

이들 '언론 전국'은 지난 8일 외국 기자들을 맞이했다. 베이징 올림픽의 해외 취재 기자단 규모는 2만 2400명이다. IOC가 규정한 2만 1600명을 초과하는 규모다. 올림픽 비동록 기자단은 3만 명이다.

이 가운데 베이징국제언론센터(BIMC)는 해외 언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기자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직접 현장을 찾았다.

베이징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인 귀자타위장(國家體育場)과 2km 떨어져 있지 않다. 대형 응접실, 기자실, 브리핑실, 전시회 구역 및 식당 등이 갖춰져 있다.

컴퓨터, 인터넷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설비는 물론, 퍼스널 네트워크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700 위안(약 10만 원)의 보증금만 내면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특수 제작된 지도 위에, 펜으로 목적지를 살짝 누르면 목적지까지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생활도 보장한다. 한끼 식사는 1달러(약 7원)로 해결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 약 1천 800m² 규모의 대형 식당은 1천 여명의 기자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값이 싸다고 질과 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십 가지의 중식, 양식을 고루 갖추고 있고, 영양 또한 풍부하다.

그러나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건 내실이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원 분배를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띠끼이(大概-대략)' 혹은 '예쉬(也許-아마도)'란 말은 절대 못하게 한다. 중국을 제대로 알리는 언론 첨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한계는 있다. 천안문 내의 생중계를 금지해 외국 언론들의 반발을 산 게 대표적 사례다. 뿐만 아니라, 자율, 민주 같은 가치관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올림픽으로 중국은 언론에 대한 생각이 쑥 올라갔다. 이게 올림픽이 중국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

/jrkccm@paran.com



이청용을 지켜보라

한국 축구팬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이청용(20·서울·사진)의 활약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축구월간지 베스트일레븐이 해외축구 사이트 사커라인과 지난 7일부터 16일 까지 공동 실시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미드필더 이청용이

총 투표자 1천 190명 중 374명(31.4%)의 선택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베스트일레븐은 이청용이 올해 A대표팀 데뷔전까지 성공적으로 치르며 한국축구 세대교체의 대표주자로 떠올랐고, K-리그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훌륭했다.

같은 팀에서 활약 중인 기성용(19)은 13.1%(156명)의 표를 얻어 2위에 뽑혔다.

올림픽 축구 기대주 1위로 뽑혀

'베스트일레븐' '사커라인' 설문

아쉽게 18명 최종엔트리에 들지 못하고 예비명단에만 포함된 공격수 서동현(23·수원)이 11.8%(140명)로 3위에 떴다.

4위는 24세 이상 와일드카드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김동진(26·제니트)에게 돌아갔고, 최근 대표팀은 물론 소속팀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박주영(23·서울)은 5위에 머물렀다.



올림픽 소식



주경기장 모형에 세워진 종목 로고들

중국 조각가들이 2008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 모형에 각 종목을 형상화한 로고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시내 호텔 예약률 낮아 방값 대폭 할인

지난달보다 거의 반값으로 폭락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호텔 예약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베이징 시내 호텔들이 방값을 대폭 할인.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22일 베이징 시내 3,4성급 호텔들이 올림픽 기간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방값을 대폭 할인하기 시작했다고 소개.

올림픽 기간 3성급 호텔의 방값은 하루

400위안(60만 원)으로 지난달의 700위안(10만 5천 원)에 비해 300위안이나 급락. 또 4성급 호텔 방값도 지난 5월과 6월 평균 1천 500위안(22만 5천 원)에 달했으나 지금은 800위안(12만 원)으로 폭락.

오스트리아 "개별 투숙 안돼"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최악의 도망 소동을 겪은 오스트리아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선수들의 개별 투숙을 금지

지하기로 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22일 보도.

오스트리아올림픽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지약물 사용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선수단의 거처를 선수촌 등 공식 숙소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토리노 동계올림픽 당시 선수촌 밖에 따로 숙소를 잡은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무더기로 금지약물 반응검사에 걸리는 바람에 선수 6명이 영구 제명되고 오스트리아올림픽위원회도 벌금 100만 달러를 내는 과문을 경험.

23일(수)

▲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 LA에인절스>(10 : 55·Xports)

▲ 프로야구 <기아 : 삼성>(18 : 20·Xports), <두산 : 한화>(18 : 00·KBSN SPORTS), <롯데 : SK>(18 : 10·SBS 스포츠)

▲ 풀럼 한국투어 <부산 아이파크 : 풀럼>(18 : 30·MBC 스포츠)

▲ 철시 아시아투어 <광주우 : 철시>(21 : 00·MBC 스포츠)

2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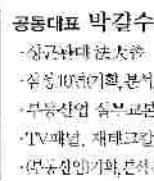
▲ 월드리그 배구 결승라운드(01 : 00·00·KBSN SPORTS)

스포츠 투데이

홈컨 不動產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위 062) 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伸介 · 開發 · 리서치 선언!



공동대표 김용삼

·호텔·부동산의 전문가

·한국·국제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개발·부동산 투자 전문가

·부동산 분석 전문가

·부동산 투자 전문가